

성능만 집착하면 안보여요… QLED가 선택 받은 이유를

삼성 QLED TV 높은 판매량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중요시
65형 대형TV 가격 경쟁력에
실제 성능 차이도 구별 어려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 기술력 논쟁에 한창이지만, 정작 시장에선 QLED TV에 치우쳐진 모양새다. 올레드 TV가 여전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운데, 실제 거실 환경에서는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오버 스펙'이 아니라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다.

1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QLED TV가 'TV 대전' 이후에도 높은 판매량을 이어가고 있다. 훈수 시장 확대와 기술력 경쟁으로 LG 올레드 TV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은 QLED TV가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다.

가장 큰 이유로는 가격 차이가 꼽힌다.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65형 4K 제품을 기준으로 QLED TV는 170만원 안팎에 판매된다. 올레드 TV는 250만원에 육박해 50% 가까이 비싸다.



삼성전자 QLED TV는 밝은, LG전자 올레드 TV는 어두운 환경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다. 사진은 삼성전자 한종희 사장과 함께 있는 QLED TV(왼쪽)과 LG전자 올레드 TV.

전히 일부 소비자는 번인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못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증언했다.

TV 디자인 측면에서도 LG전자가 다소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삼성전자 '라이프 스타일' 라인업 때문이다. LG전자가 일찌감치 레트로 TV를 내놨다가 올레드 TV에 주력하는 사이, 삼성전자는 세로와 더 세리프 등 독특한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틈새 시장까지 점령했다.

삼성전자와 업계 등에 따르면 라이프 스타일 제품 판매 비중이 높지는 않다. 그러나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가구에서 꾸준히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현재 삼성전자 라이프 스타일 제품군 외에는 대안이 거의 없는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대부분이 올레드 TV 구매를 염두에 두고 있다가, 실제 밝은 환경에서 제품을 확인하고 가격을 비교해보고는 QLED TV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며 "초고가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만은 올레드 TV가 압도적"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이는 대형 TV를 선호하는 '대대의 선' 소비자 성향과도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250만원이면 QLED TV는 75형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다.

올레드 TV가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QLED TV를 넘어서는 차이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올레드 TV가 자발광 소자를 사용해 색 재현율이 상대적으로 뛰어나지만, 일반 조명이 있는 환경에서는 백라이트를 쓰는 QLED TV와 크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로 LG전자는 올레드 TV 광고에 '완벽한 블랙'을 내세워 성능 차이를 부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QLED TV가 백라이트를 이용해 화면을 더 밝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를 유인하는 요소다. 올레드 TV는 자발광 소자는 한계 때문에 너무 밝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표현력이 떨어진다고 알려졌다.

'반도체 왕국' 삼성전자가 아심차게 만든 '퀀텀 프로세서'도 QLED TV 인기 요인 중 하나다. 화면을 스스로 인식

해 색 재현율을 높여주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모드를 지원해 만족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수명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크다. 올레드 TV의 고질적인 문제인 '번인' 때문이다. 번인은 청색 소자가 수명이 짧아서 잔상이 남는 문제로, 올레드 TV 문제로 지적돼왔다.

LG전자는 이미 청색 소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번인 문제를 거의 해결했다는 입장으로, 실제 여러 테스트를 통해 증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



유영상 SK텔레콤 부사장(MNO 사업부장·왼쪽부터), 박한우 기아차 사장, 송창현 코드42 대표, 박일평 LG전자 사장(CTO), 임경목 CJ주식회사 부사장(기획실장)이 지난 9월30일 서울 강남구 서브원강남빌딩에서 CODE42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기아차-SKT-LG전자-CJ주식회사](#)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300억 투자

특화역량 활용 코드 42와 협업 진행

기아자동차를 비롯해 SK텔레콤과 LG전자 등이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타스(TaaS, Transportation as a Service·서비스로서의 수송')를 개발중인 스타트업 '코드42'에 300억원의 투자를 단행했다.

코드42는 기아차 150억원을 포함해 SK텔레콤, LG전자, CJ주식회사 등 총 300억원의 투자를 유했다고 1일 밝혔다.

코드42는 송창현 대표가 올해 초 설립한 자율주행 관련 모빌리티 서비스 스타트업이다. 송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에서 기술 개발 업무를 경험하고 2008년 네이버에 합류, 인공지능(AI) 스피커와 파파고, 자율주행, 로보티cs 등 차세대 혁신 기술 개발을 이끌었다.

코드42에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과 국내 유수 대기업에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담당하던 핵심 연구인력들이 일하고 있다. 자체 개

발한 통합 플랫폼(UMOS)은 자율주행 차와 드론, 딜리버리 로봇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합해 차량 호출과 차량 공유, 로봇 택시, 스마트 물류, 음식 배달, 이커머스 등 모빌리티 서비스의 모든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자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각 업체의 특화된 핵심 역량을 활용해 자율주행과 전장, 통신, 물류, 콘텐츠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코드42와 협업을 진행하게 된다.

송창현 코드42 대표는 "투자사들이 보유한 여러 산업에 걸친 서비스 및 인프라와의 시너지를 통해 차세대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프리(Pre)-A 라운드를 기점으로 UMOS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에 최적화된 도시 교통 운영 방식과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KT-현대건설, 5G로 스마트 건설 추진

업계 최초 기업전용 5G 도입해 2곳서 5G 건설솔루션 실증 계획

KT는 현대건설과 1일 서울 계동 현대건설 사옥에서 '5G 기반 스마트 건설 자동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5G 건설자동화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사에서 5G(5세대 이동통신)를 도입해 건설현장을 혁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5G 기반 건설분야 생산성과 품질향상 기술 개발 ▲5G 스마트 건설기술(자

율주행 건설로봇 등) 개발 ▲5G 건설 현장 모니터링 기술 개발 및 정보교환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개발한 기술들을 사업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5G를 사용하면 대용량의 현장 3D 스캐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송할 수 있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에 자율기동 로봇을 파견해 실시간으로 조종할 수 있다. 고화질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이상상황을 바로 모니터링 할 수도 있다.

현대건설은 연내 건설사 중에선 최초

로 KT로부터 기업전용 5G를 도입하고, 국내 2개 건설현장에서 시범적으로 5G 건설 솔루션을 실증할 계획이다. 또 양사는 실증 시범사업을 마친 후에도 5G 기반 건설현장 관리기술을 보급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R&D센터장 이석홍 전무는 "현대건설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 및 현장 적용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KT와의 5G 기반 기술협력 사업화로 전 현장의 생산성 향상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kkni@

지니-엠넷닷컴 통합 콘텐츠 플랫폼 선봬

AI 음악 추천·동영상 강화 기존 고객들도 간편 전환

지니뮤직은 1일부터 지니와 엠넷닷컴을 통합해 프리미엄 콘텐츠 플랫폼 '지니'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지니뮤직은 지난해 CJ디지털뮤직과 합병 후 인공지능(AI) 기반의 음악플랫폼 지니와 음악·영상 콘텐츠 경쟁력을 보유한 엠넷닷컴의 서비스 통합을 위해 1년 간 기술적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통합 플랫폼 지니의 고객들은 이날부터 AI 음악 서비스 환경에서 초고음질 24비트(bit) FLAC(Fred Lossless Audio Codec) 음원과 CJ ENM이 제공하는 흥행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기존 엠넷닷컴 고객들은 엠넷닷컴에서 사용하던 이용 패턴 그대로 지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니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 한 후 기존 엠넷닷



지니뮤직 직원들이 지니와 엠넷닷컴의 서비스 통합을 홍보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인천~멜버른’ 직항](#)

12월 26일부터 운항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주 1회 목요일에만 인천~멜버른 간 부정기편을 운항한다고 1일 밝혔다. 호주 멜버른은 그동안 한국에서 출발하는 직항편이 없어 경유 노선을 이용해야 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으로 직항편을 통해 방문이 가능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멜버른 취항을 기념해 특가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오즈드림페어에서 최저 141만원부터 시작하는 멜버른 왕복 항공권을 특가로 판매한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도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최저 144만원부터 시작하는 왕복 항공권을 할인·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